원도심 기억을 담다
도시재생 공간 탐색 (9) 디자인공장/W360

1 칠성로 디자인공장 간판.
2 디자인공장 3층. 업무, 스터디, 회의 공간 등이 갖춰졌다.
3 옛 제주지방기상청 건물을 리모델링한 W360.
4 주변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W360 1층 W스페이스.

오래된 원도심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

아케이드 상가 디자인공장
1인 기업 등 3층·지하 입주
콘텐츠·디자인·기획 분야

언덕배기 옛 기상청 건물
혁신창업거점 W360 조성

오래된 원도심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간이 있다. 디자인공장과 W360이 그런 곳이다. 디자인공장은 '창작의 힘이 모이는 공간'을 표방했고, W360은 '원도심 혁신창업거점'을 내세웠다.

제주시 칠성로길 1번지 도시재생 상생모루에서 칠성로 아케이드를 따라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디자인공장(칠성로길 8)이 있다. 일도1동 교육문화센터가 들어선 건물 3층과 지하1층의 디자인공장은 청년 창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디자인공장을 가동해왔다. 콘텐츠, 디자인, 기획·마케팅 분야에 걸쳐 원도심 커뮤니티 기반 비즈니스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기업을 모집해 운영 중이다. 입주 기간은 8개월이고 1년 더 연장 가능하다.

아케이드 시설 탓에 저활용되는 일이 많은 칠성로 건물을 '세상 밖으로' 꺼낸 디자인공장 3층에는 업무, 스터디, 회의, 휴식 등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배치됐다. 지금은 디자인이나 컨설팅 관련 1인 기업 등 5팀이 입주했다. 지하 1층은 공유공방으로 여러 도구와 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에 맞춤한 공간으로 현재 1팀이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디자인공장을 거쳐간 업체들은 칠성로에 흩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문화적 소통'을 주제로 지역민 의견을 반영한 역량강화 디자인 포럼 등을 열어왔다. 앞으로 입주 업체를 중심으로 플리마켓, 교육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디자인공장에 입주했다는 스타트업 육성 컨설팅 업체 DC 2J의 양석원 대표는 "1년여 전 고향 제주로 돌아왔다. 제주의 중심지로 원도심이 지닌 상징성이 큰 만큼 이곳을 기반으로 기업 인프라를 다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W360(동문로9길 13-1)은 칠성로 아케이드 종점 맞은 편에 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해 산지천변 언덕배기 옛 제주지방기상청 건물 1~2층을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높은 다락에서 북극성을 바라보다'는 뜻을 가진 조선시대 제주성 부속건물 '공신정'이 있었던 데서 짐작하듯 W360에 오르면 탁 트인 주변 전망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해 11월 준공한 이곳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탄생했다. 창업 관련자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협업공간인 W스페이스, 강연장인 알파룸,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는 델타룸, 입주기업실인 베타룸, 단기 프로젝트 창업자를 위한 감마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필요한 영상 스튜디오 등을 갖췄다.

얼마 전에는 2기 입주 기업 모집을 마쳤다. 예비창업자나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ICT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졌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입주 기업에 공간 제공은 물론 제주본사 등기 이전비 등 정착 지원, 기업별 전문가 매칭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보육기업 지원을 벌인다.

글·사진=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코로나19 문화예술에 새로운 가능성"

제15회 제주포럼 문화세션
한·중·일 예술가 등 발표
"문화예술 인간에게 용기 줘
코로나 시국 엄청난 창의력"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제주도가 마련한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문화세션을 통해서다.

이날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 속 문화예술의 역할'을 주제로 롯데제주호텔에서 열린 문화세션은 이선화 제주도문화예술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중·일 예술가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중국, 일본, 프랑스는 화상으로 연결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 작가로 현재 베이징에 머무는 중국 현대미술가 펑정지에는 "예술 창작은 바이러스가 가져다 주는 부정적 정서를 벗어나게 해준다"며 '동북아의 허브'인 제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아시아 예술인을 초청한 제주문화예술포럼 상설화 , 아시아예술비엔날레 또는 트리엔날레 개최 등을 제안했다.

제주에 거주하는 민병훈 감독은 "최근엔 영화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인 OTT 전성시대를 맞으면서 독립영화, 작은 영화 등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능희 제주오페라연구소장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반기 들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며 "제주 자연은 특특하고 제주스러운 공연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키나와 소설가 오시로 사타토시는 문학과 문화예술이 지닌 힘에 주목했다. 그는 "문화예술은 인간에게 용기를 주고, 언어가 있는 한 문학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며 그것들이 감염병 사태 속에 시·공간과 국경을 뛰어넘어 연대와 공감, 신뢰를 이끌어낸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캐서린 컬린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분과위원회 특별자문관은 "코로나19로 루브르박물관 등 문화기관, 시설이 봉쇄됐고 행사 참여도 어려워졌지만 발코니에서 연주를 하고 거실에서 춤을 추는 등 엄청난 창의력과 역동성이 문화 쪽에서 나왔다"며 "그럼에도 한발 더 물러서서 문화의 힘을, 그 진가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제주 공예공간과 공예인을 찾아

제주 크래프트 위크 운영
온라인 등 활용 전시·체험

'2020제주공예축제-공육사 제주 크래프트 위크'(11월 7~13일)가 '재주농담'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치러지고 있다.

이 기간 제주공예축제 홈페이지(http://jejucraft.com)에 접속하면 '언택트 재주'란 이름 아래 제주공예인 20여 명이 참여한 기획전, 작가 작업실을 만날 수 있다. 도내 곳곳에 흩어진 공예 스팟 정보도 올려놨다.

10여 곳의 공예 스팟에선 '스팟인 제주-콘택트 농담'이 펼쳐진다. 공예 관련 이야기로 소통하고 전시, 공예 체험, 마켓 등이 진행된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해야 한다.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이 주최하고 064페스티벌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 크래프트 위크는 2016년 제주 공예자원 조사를 계기로 기획됐다. 제주 공예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열리고 있다. 진선희기자

온라인 기획전 김정윤의 '그 섬(島)을 담아'.

문화가 쪽지

예술경영 비대면 컨설팅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단체)의 권익보호와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11월~12월 제주예술경영 비대면 컨설팅에 나선다.

문예재단은 이번 컨설팅을 위해 예술창작, 예술일반, 법률, 노무, 회계분야 전문가 23명을 위촉했다. 코로나19로 고민이 깊어진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술경영, 법무, 노무, 저작권 등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했다. 컨설팅 신청은 제주문예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800-9132.

제주영화제 활동가 모집

사단법인 제주영화제는 11월 29일~12월 27일 개최되는 제16회 제주영화제를 앞두고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행사·상영 지원, 기술지원, 홍보 지원이다. 영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제주영화제 홈페이지(www.jejuff.kr)에서 자원활동가 신청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달 1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jejuff@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이달 12일 개별 통보한다. 문의 748-0503.

숲에서 읽는 어린이 그림책

탐라도서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도서관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달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일요일 운영되는 '숲에서 읽는 그림책'으로 도서관 야외 작은 정원과 산책로 잔디 마당을 활용해 그림책을 읽은 후 숲놀이를 경험해 보는 입체적 프로그램이다. 오전에는 6~7세, 오후에는 8세 어린이 15명씩 참여할 수 있다. '숲 연구소 꿈지락' 김난희 대표와 숲놀이 지도 강사가 진행을 맡는다. 제주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올라있다.

제주지회 우수 묘목업체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땀과 정성이 담긴 제주의 명품을
바르게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높고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공급으로 농가소득 및
감귤농업발전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서귀종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697번지
Mobile : 010-2693-1336 / Tel : 064-733-7005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7-20-19호

푸른지게 장원농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흔리 3083
Mobile : 010-4450-4316 / 010-6550-4316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JEJU HALLA FAM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Mobile : 010-6500-2329 / 010-4736-247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민성종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013-1번지
Mobile : 010-3694-5423 / 010-8948-1082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위 업체는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묘목인가
회원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